Switzerland Tourism.

관광대국 스위스도 고민? 산악 자전거가 그 해답이 되어줄까?

특명, 산을 새롭게 재발명하라!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있는 스위스, 그 해결책은?
작년 초겨울, 눈이 안와 피해본 스위스 스키장
날씨 악재처럼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방책을 연구해 보자
늘어나고 있는 산악 자전거. 그렇다면 이바이크 수요는 어떻게 할까?
라우터브루넨에 새로운 산악 자전거 트레일 루트 개발 계획 제안되기도
마침, 7 월 18 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뚜르 드 프랑스에 베른이 코스로 포함되어 이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산악 관광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에서는 산악관광 개발에 관련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 속에서 고민도 생기고, 논쟁도 생긴다.

관광대국 스위스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프랑 강세도 난국이고, 지난 겨울에는 눈이 안와 스키장들이 제 때 문을 못 열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쿨'한 여행지로 거듭날 수 있을까도 고민이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정부관광청 CEO 인 유어그 슈미트(Jürg Schmid)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한 포럼에서 '지금은 알프스 관광의 르네상스를 맞기 위해 관광업계가 움직여야 할 때다. 산을 새롭게 '재발명'하기 위해서 말이다. 문제는 어떻게이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날씨 악재로 인해 겨울 시장의 안정성 컨트롤이 어려워진 대신 여름 관광을 알프스에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의도로,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미 진전되고 있는 중이다. 자동차로 알프스 고갯길을 달리며 투어를 하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도 그 중 하나다. 자전거 여행자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고객층이라는 분석이 있어, 스위스 모빌리티(Switzerland Mobility)와 함께 산악 자전거 관련한 관광 아이템을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에서 새로운 산악 자전거 루트 개발에 관련한 구조 계획이 해당 정부 기관에 제안되기도 했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산악 이바이크 규제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기도 하다. 마침, 7 월 18 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뚜르 드 프랑스에 베른이 코스로 포함되어 이슈가 되며, 스위스 내 자전거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스위스다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치밀한 규제를 통해 알프스 산의 자연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산을 발명해 내는 과정을 그들은 천천히 공을들여 이뤄낼 것이다.

자료협조: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